

사람생각!  
노동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 할말은 한다 6호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폭언 OUT! 반말 OUT! 성희롱 OUT! 인권존중 OK!**  
**노동환경 개선위해 노동조합이 뛰겠습니다!**

## 환자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자



**OUT**

**공짜노동 OUT! 태움 OUT!**  
**속임인증 OUT! 비정규직 OUT!**

보건의료노동자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하다!  
우리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함께 내미는 '레드카드'



**공짜노동**

**OUT**



**시간외 근무 줄이고, 인력확충으로 더 안전한 병원을**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오버타임을 하며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당신청을 금지당하기도 하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노동이 만연할수록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맙니다.

**태움 OUT**



**폭언, 폭행, 성희롱 멈춰! 갑질, 인권유린 근절로 노동존중 병원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인력부족으로 과도한 노동에 내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 상호존중과 협력이 무너지고 '태움'이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상급자, 동료,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임인증 OUT**



**일회성 반짝 평가, 이제 안돼!**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그 취지와 달리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반짝 평가, 눈속임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반짝인증은 그만,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OUT**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부터**

병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고용의 질은 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환자안전과 직결됩니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과제입니다.

# 안암병원 000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더 이상 폭언과 반말, 성희롱에 시달리며 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부팀장의 폭언과 반말 심지어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여 년 동안 한사람에 의해 반복적으로 듣는 상황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무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팀장은 부서원들에게 반말은 기본으로 일삼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언도 서슴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되면 업무와 관련된 폭언은 물론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서장의 자격이 없거니와 나아가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은 8시 이전에 하도록 강요, 화장실 가는 것 보고, “타 파트는 조기출근 수당을 받고 일을 하지만 우리 파트는 수당 안 받고 일찍부터 일 한다” , “넌 왜 이렇게 무식하니” , “니가 한 것은 하나도 못 믿겠다. 다른 사람 바꿔라” )

또한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무 중, “너 참 이상한 애다. 어떻게 남자 없이 이 나이 까지 살 수 있냐?? 난 하루도 남자 없이 살 수 없는데” )

또한 업무적으로도 폭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신체적 가해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해당될 정도로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위서 작성 시 일방적 강요, 손으로 어깨를 쿡쿡 지르면서 “너는 이 부서에서 할 자격이 없어” ,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이라는 게 있니??” , 볼펜 끝으로 어깨를 쿡쿡 지르면서 “너는 기본이 안 되었어 ” , “너 정규직 되고 싶냐 ??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평생 일해도 정규직 못한다.” , “그 판 식으로 해서 정규직 달겠냐 ??

결국 부서원들은 과 팀장에게 이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를 밖으로 알려야겠다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부서의 구성원들은 이를 해결하길 원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러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의 반말과 폭언 성희롱을 들으면서 일 할 수 는 없습니다.

현재 안암병원 000부서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과 반말 폭언등의 심각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적게는 1년 길게는 20여 년 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반말을 들어온 직원들은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그 요구는 결국 묵살되고야 말았다. 또한 팀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서원들의 보호 및 격리조치등의 개선책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부팀장, 팀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부서의 업무환경을 최적화 하여 병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폭언과 반말 심지어는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를 묵살하고 방관하는 태도가 과연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팀장과 팀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부서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료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 77조 의료원내 성희롱, 폭언, 폭행 금지 조항에 따라 조합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야무야 된다면 우리지부는 이를 병원 내 갑질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